위대한 사상가들이 알려주는 사랑과 인생

‘철학적으로 널 사랑해’

올리비아 가잘레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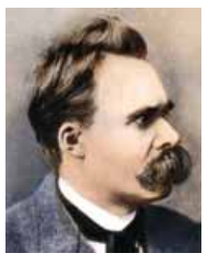
남자와 여자에게 같지만 다른 뜻을 의미하는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어휘를 꼽는다면 아마 ‘사랑’이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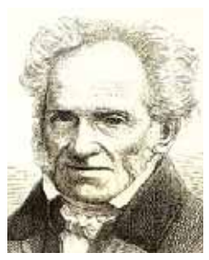
오스카 와일드의 ‘명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남자들은 언제나 여자의 첫사랑이 되길 원한다. 여기에 그들의 어설픈 자만심이 있다. 반면 여자들은 좀 더 확실한 본능을 갖고 있다. 여자들이 바라는 것은 한 남자의 마지막 사랑이 되는 것이다.”

사랑을 바라보는 남녀의 시각차이를 드러낸 말이다. 남녀라는 성차뿐 아니라 사랑은 지역, 종교, 시대에 따라서도 표상하는 의미가 달라진다. 그만큼 가변적이라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사랑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주제도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사랑은 모든 문화의 보편적 주제이자 개인의 본질적 문제다. 인류의 역사가 사랑으로부터 시작해, 사랑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랑이 식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까? 영원한 사랑은 가능할까? 시대를 초월해 많은 이들은 여전히 사랑의 본질에 대해 궁금해 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사랑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내린 적이 없다.(남녀의 사랑인 에로스는 그만큼 정의하기 힘들다) 프랑스의 저명한 저술가 올리비아 가잘레가 쓴 ‘철학적으로 널 사랑해’는 문학, 철학, 심리학, 역사학, 사회학 등 분야를 망라한 사상가들의 사랑에 관한 보고서다. 저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니체, 키에르케고르, 쇼펜하우어 , 쿤데라 등 각 분야의 영향력을 지닌 사상가들의 의견을 사랑과 연계해 소개한다.


니체


쇼펜하우어

성적 감각은
연민·숭배의 감정
사랑은 파괴보다
변화를 더 두려워해

모든 열정은 겉으로
숭고해 보여도
그 뿌리는
성적 본능에 있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1부 ‘사랑을 말하다’는 다양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다루며, 2부 ‘사랑을 배우다’는 진정한 사랑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랑의 정의는 모두 8개의 단어로 귀결된다. 유혹, 욕망, 금욕, 결혼, 이혼, 쾌락, 사랑, 섹스로 나눠 사랑의 다면성을 들여다본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열정은 겉으로는 숭고해 보여도, 그 뿌리는 성적 본능에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은 지고지순한 선택이었다는 믿음을 보기좋게 배반한다. 인간의 자의식은 종족 유지 본능의 굴레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종(種)의 특성을 발휘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 세기의 커플 샤르트르와 시몬 드 보봐르의 사랑은 일말의 답을 준다. 이들은 철학자와 여성 작가로 계약결혼을 했던 세기의 커플이다. 말년의 샤르트르는 눈이 멀고 거동도 불편했으며 안면마비로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보봐르는 간호원으로, 정부로, 비서로 끝까지 그를 사랑했고, 그를 위해 행동했다. 한마디로 자신의 약속에 절대적으로 충실했다.사랑은 받고 싶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행위다. 에고이즘보다 이타성의 실현이다.

“상대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성장하도록 돕고, 그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행동하는 정절을 가진 관대한 마음이며,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주)레디셋고·1만9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죄책감 조차 없는 학살자 전두환의 모든 것

‘아직 살아있는 자 전두환’

고나무 지음

‘쿠데타가 악마적 사건이라면, 악마적 사건은 왜 진압되지 못했는가? 쿠데타군이 악이라면, 진압군은 왜 성공하지 못했나?’ ‘전두환이 악이라면 1979년에 왜 선은 악을 이기지 못했을까? 전두환이 악이라면, 악은 왜 성공했을까?’

‘아직 살아있는 자 전두환’은 가장 문학적이고 탐미적인 전두환 르포이자 현대사 다큐멘터리다. 책은 잔혹하면서 인간적이고, 소탈하지만 권위주의적이며, 영악하면서 반지성적인 한 인간, 잔정이 많은 조폭형 리더였지만 동시에 광주 시민을 학살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냉혈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1976년 생으로 현재 ‘한겨레’에서 기자활동을 하고 있는 저자 고나무는 “철저히 사람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며 이 책을 펴냈다.

‘당신은 어느 편인가?’를 묻는 좌우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기 위해 사람의 구체적인 행적을 쫓고 인터뷰했다. 그러기 위해 발로 뛰어서 5공화국 시대의 인물과 전두환 주위의 사람들을 인터뷰해야 했다. 전두환의 전기를 썼다가 고초를 겪은 작가 천금성, 대우전자 사장이었던 배순훈, 기자 조갑제, 전 공화당 사무총장 예춘호를 직접 만났다.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은 인물이었기에 “그에 대한 취재와 집필 과정은 죽은 자에 대한 전기를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전한다. 〈북콤마·1만55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우리 모두는 이 문제 앞에서 똑같이 무지하다”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짐 홀트 지음

왜 존재하는가? 존재의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미국의 유명한 프리랜서 작가 짐 홀트가 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는 존재론적 문제에서 출발한다. 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상을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의 결과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주어진 사실’로 인정하느냐는 모두 합당한 답이 아니다.

저자는 철학자, 신학자, 분자물리학자, 우주철학자 등과 만나 벌인 토론을 바탕으로 존재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낸다. 일반적인 철학서와 달리 대중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 철학자들의 모습, 태도 등을 세밀하게 그려낸다.

왜 존재하는가라는 궁극의 수수께끼에 대해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 모두는 이 문제 앞에서 똑같이 무지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영국의 천제물리학자 버나드 러벌 경은 “사람들의 마음을 갈가리 찢어놓을 수 있다”고 설파했으며, 언어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 세상의 존재에 대해 경이로움을 표현하지만, 수수께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과학계에서도 존재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유명한 수리물리학자 로저 펜로즈는 “존재는 기적처럼 스스로를 창조하고 유지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우주학자 존 네슬리는 “세상의 실체가 어떤 추상적인 원리에 스스로의 실존을 빚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염려와 판단, 선의가 행해지는 방식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한다.

〈21세기북스·2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농산물 펀드’에 얽힌 농촌 이야기

‘맨땅에 펀드’

권산 지음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 책은 작년 지리산닷컴(www.jirisan.com)에서 진행한 농산물 직거래 펀드를 일컫는다. 1계좌당 30만원씩 100명의 투자자를 모집, 농산물로 배당을 해주는 프로젝트다.

책을 쓴 권산 지리산닷컴 ‘이장’은 부산에서 태어난 경상도 사나이지만 지리산이 좋아 2006년 구례에 정착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서울에서 직장생활도 했지만 ‘나를 위해 살자’는 결심을 하고 월급쟁이 생활을 접는다. 책에는 ‘맨땅에 펀드’라는 기이하고 위험한 펀드가 1년간 겪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한마디로 농촌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다룬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매일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작물과 밭의 모습은 어떤 자연 다큐멘터리보다 생생하고 재미있다.

작년 실험 운용을 마친 펀드는 올해에도 투자자를 334명으로 확대해 순항중이다. 〈반비·1만7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인생을 노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

‘쥰페이, 다시 생각해!’

오쿠다 히데오 지음

“인생을 과연 노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

스물한 살의 쥰페이. 도쿄의 환락가 가부키초를 무대로 활동하는 야쿠자 조직 하야다파의 똘마니. 그에게 인생이란 기대도 희망도 없는, 그저 몸을 움츠리고 견뎌 내면 그만인 것에 불과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제안을 받고 생과 사, 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남은 청춘의 시간, 앞으로 사흘. 쥰페이에게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초베스트셀러 ‘공중 그네’ ‘남쪽으로 튀어’의 작가 오쿠다 히데오가 또 하나의 걸작 장편 소설을 냈다.

무심한 듯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오쿠다 히데오의 날카로운 시선은 이 소설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다. 인간 소외와 가족 해체, 청춘의 방황과 고통이라는 문제를 쥰페이라는 야쿠자 청년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재인·1만38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이제, 거대한 중심이 아닌 다양한 주변을 보자

‘우리시대의 주변/횡단 총서’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기획

거대한 중심이 아닌 다양한 주변을 보자는 주장을 담은 학술총서가 출간됐다.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와 (주)현암사가 기획한 ‘우리시대의 주변/횡단 총서’는 중심에서 소외된 주변부에 관심을 기울인다.

아일랜드 더블린 시립대학 교수 마이클 크로닌이 쓴 ‘팽창하는 세계’는 세계화된 환경 속에서 지역의 삶과 문화가 맞닥뜨린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팽창하는 세계’는 기술의 발달로 인간과 지식의 이동은 빨라졌지만 사실은 무질서한 메트로폴리스로 변해버린 오늘의 현실을 말한다.

저자의 시각은 기존의 세계화 폐해를 다룬 학자들과 사뭇 다르다. 그는 세계화의 현실을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점점 축소되고 있는 세계, 문화적으로 동질화되고 있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활용, 차이를 존중하는 공존의 공간으로 만들자고 주창한다. 한마디로 기술네트워크를 새로운 관계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얘기다. 로컬(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에 기초해 세계와 관계하는 형식, 다시 말해 ‘미시정치학’을 유효적절하게 응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밖에 이번에 출간된 1차분은 ‘아래로부터의 포스트식민주의’ (로버트 J.C 지음), ‘유럽을 떠나라 : 파농과 유럽인의 위기’(루이스 R. 고든 지음), ‘경계에서 만나다 : 디아스포라와의 대화’ (서경식·서민정·김용규·이용일 지음)도 있다. 〈현암사·각 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신간

▲음악가의 생활사=베토벤은 왜 이중계약을 했고, 모차르트는 왜 부업에 매달렸을까? 하이든의 고용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실려 있을까? 오늘날 명예와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거장 음악가들은 과연 생전에도 그처럼 화려한 삶을 살았을까? 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음악 거장들의 숨겨진 면모들 외에도, 명성과 영광을 얻고자 고군분투했으나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음악가들의 삶을 가감 없이 전해준다. 〈열대림·1만6000원〉

▲지식의 반전, 거짓말주의보=전 세계 100만 부 이상 팔린 ‘지식의 반전’ 시리즈 ‘거짓말주의보’는 잘못된 의학적·역사적 상식의 오류를 바로 잡는 지식책이다. 영국 BBC의 인기 퀴즈 프로그램 QI에서 나온 기상천외한 질문과 그 해답을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풀어냈다. 저자들은 잘못된 출처, 표기 오류, 속설의 진위를 파헤침으로써 황당무계한 거짓말이 왜 탄생하게 되었는지 소개한다. 〈해나무·1만4800원〉

▲몽테스키외의 로마의 성공, 로마제국의 실패=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몽테스키외가 도시 국가 로마의 탄생에서 동로마 제국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2000년 로마사 전체를 살펴보면서 로마의 번영과 멸망의 원인을 색다르게 분석했다. 저자는 로마의 멸망에 대해 일반적 통설과는 다른 이유를 제시한다. 로마는 내부의 ‘분열’ 때문이 아니라, 정복사업으로 인한 ‘번영’ 때문에 멸망했다고 주장한다. 〈사이·1만5400원〉

▲사기꾼=법정 스릴러의 대가, 초특급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그리샴의 최신작. 연방 정부에 삶 전체를 도둑맞고 5년째 수감생활 중인 전직 변호사 맬컴 배니스터가 연방 판사의 살해사건 수사에 뛰어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그리샴은 이 소설을 통해 미국 사법 체계의 모순을 신랄하게 파헤치는 한편,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 문제를 유머코드에 녹여냈다. 〈문학수첩·1만4000원〉

▲조선 후기 사상사의 미래를 위하여=개념과 사유 체계의 지속과 대립으로 본 18, 19세기 한국의 사상을 이야기한다. 책 제목인 18, 19세기 조선 사상사의 ‘미래’라는 표현은 다양한 뜻을 품고 있다. 조선 사람들이 고민한 미래로도 ,지금 여기에서 진행 중인 학문인 ‘조선 사상사’의 미래로도, 조선의 사상을 통해 지금의 우리 미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담는다. 〈푸른역사·2만원〉

▲정세현의 통일토크=2010년말 출간된 전작 ‘정세현의 정세토크’는 해당 시기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중심을 두고 그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초점을 맞춘 책이었다. 이번에 출간된 ‘정세현의 통일토크’는 현장에서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던 실무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총결산하고, 남과 북 또는 우리 구성원들 사이의 주요 논란과 쟁점들을 정리하여 분석한 책이다. 〈서해문집·1만8000원〉

어린이 책꽂이

▲예쁜 달님=철학 그림책 화가로 알려진 프랑스 에릭 바튀의 신작. 어둠 속 희고 둥근 달 하나가 떠 있고, 그 아래 여덟 마리의 고양이가 하나씩 눈을 뜨며 함께 달을 구경한다. 스슥 없어졌다 다시 나타난 달은 갑자기 사방이 환해지자 그곳에 있었다는 흔적만 남긴 채 사라져 버린다. 불을 켜고 달아난 범인은 다름 아닌…. 〈파랑새·1만2000원〉

▲정글곰=세계적인 거장 앤서니 브라운 신인작가 공모전 수상작. 한 아이가 한밤중 거실에 나타난 북극곰과 함께 떠난 모험이야기. 아이와 북극곰이 찾아간 사라진 동물들과 그들이 살았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보여줌으로써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조용하게 일러준다. 〈현북스·1만2000원〉

▲살짝이 주인을 찾습니다!=유기견 살짝이와 광교의 우정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일깨워 주는 동화. 작가 홍종의는 책을 통해 생명 경시 풍조에 무감각해진 사회에 경종을 울리며, 아이들에게 생명을 존중하고 보듬어 안는 마음과 행동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반려 동물도 마음을 주고 받는 소중한 친구와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살림어린이·9000원〉

▲고기왕 가족의 나쁜 식탁=‘지구를 살리는 어린이’ 환경 시리즈 그림책. ‘고기왕 가족의 나쁜 식탁’은 먹을거리를 주제로, 건강하고 현명한 먹을거리를 선택하면 우리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준다.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우리 건강은 물론 지구촌 식량 문제에도 영향을 주고, 나아가 지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재미있는 스토리로 풀어냈다. 〈스콜라·1만원〉

▲광고 AE & 의상 디자이너 외=적성과 진로를 짚어주는 직업교과서 시리즈. ‘교수 & 헤드헌터’ ‘건축가 & 애널리스트’ ‘유치원 교사 & 특수 교사’ ‘요리사 & 쇼핑호스트’ ‘광고 AE & 의상 디자이너’가 나왔다. 광고 AE 편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 전략을 세우고 광고 제작의 모든 과정을 지휘하는 광고 AE에 대해 알아본다. 〈주니어김영사·각 권 8000원〉